

선교회 성경공부 교재

(제 2 부 구속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 8 장-6)

2020.05.31. 주일

■ 도입

*** 오늘은 십계명 중에서 일곱째 계명과 여덟째 계명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Tip: 오늘은 하나님께서 일곱째 계명과 여덟째 계명을 주신 목적을 배워보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1 “일곱째 계명 - 간음하지 말라”

(1) 일곱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 문자 그대로
- 현재 배우자나 주님으로 인해 만족함으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두지 않는 것

<Tip>

칼빈은 음행은 모든 정욕의 마지막 도착점이며, 신체에 낙인을 찍는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음행을 명백히 금하시기에 우리 안에 불타오르는 정욕을 절제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2) 적용 1- 결혼과 독신 생활

- 결혼: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를 만족하며 즐겁게 결혼생활 해야 함
- * 잠 6:32-33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 * 마 5:27-28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 독신: 주어진 자유를 마음대로 쓰지 않고 경건 생활의 의무를 충실히 행해야 함

<Tip>

잠언에서는 간음이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마태복음에서는 마음의 생각까지도 모두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음 속으로 품는 정욕도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재 살고 있는 남편과 아내로 만족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는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잘 이행할 수 있습니다. 독신은 특별히 선택한 소수의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신 특별한 은사로서 이들은 육신의 안식과 편리를 구하지 말고, 주님과 결혼생활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경건의 모든 의무를 더욱 민첩히 다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3) 적용 2- 하나님과의 관계

- 영적 간음, 즉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며 살아가는 삶을 절제해야 함
-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 자신을 가꾸어야 함(참고. 엡 5:25-27)

<Tip>

간음에는 육적인 간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간음도 있습니다. 영적 간음은 신랑되시는 주님의 신부로서 자신을 깨끗하게 가꾸지 않고 세상 욕심을 따라 방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일곱째 계명을 통해 우리 안에 영적 간음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Q1) 오늘 배운 사실을 토대로 일곱째 계명에 대해 새로이 알게 된 것은 무엇이 있나요?

(Tip: 일곱째 계명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함께 나누고 적용하며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2 “여덟째 계명 - 도둑질하지 말라”

(1) 여덟째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

- 다른 사람의 소유를 의도적으로 빼앗지 말라는 것
- 적극적으로 남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한다는 것
- 도둑질은 왜 무서운 죄인가? 사람의 소유는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분배해 주신 것이기에 도둑질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깨뜨리는 행위임
- * 시 16:5-6 여호와께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 * 행 17: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Tip>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분깃을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분깃’이란 나누었을 때 분배받는 몫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과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는 말씀도 그것을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칼빈은 여덟번째 계명을 해석하면서 사람의 소유가 하나님의 뜻과 경륜에 따라 배분되기에 다른 사람의 소유를 악의적으로 빼앗지 말 것과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소유가 그 사람의 소유로 남아 있게 되도록 충실히 애써 도우라고 이 계명이 명령하고 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2) 여덟번째 계명의 올바른 적용

<자신의 소유에 대해>

- 자기의 처지를 만족하며 정직하고 합법적인 이익만을 얻는 데 힘써야 함
- 수단의 선악을 묻지 않고 아무데서나 미친듯이 긁어모아 우리의 탐욕을 만족시키거나 방탕한 생활에 낭비하지 않아야 함

<이웃의 소유에 대해>

- 힘이 닿는데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을 가지고 있도록 진실히 도와야 함
- 타인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다하여 다른 사람에게 진 빚을 충실히 갚아야 함
(부모->자녀, 자녀->부모, 청년->노인, 노인->청년, 종->주인, 주인->종)

<Tip>

칼빈은 마지막으로 여덟번째 계명이 우리의 손뿐만 아니라 마음을 위해서도 주신 말씀임을 강조하면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이익을 보호하며 증진하도록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Q2) 아래의 글을 읽고 느낀 점을 나누어 봅시다.

부모들은 하나님이 맡기신 자녀들을 양육하며 주관하며 가르치며, 학대로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답게 인자하고 친절하게 자녀를 대해야 한다. **자녀들**은 다섯째 계명에서 이야기했듯이 부모에게 복종할 의무가 있다. **청년들**은 노인들을 공경하라, 노인이 공경을 받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부족한 청년들을 자기들의 우수한 지혜와 경험으로 지도하며, 그들을 가혹하게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온화하고 인자한 태도로 말투를 부드럽게 하려고 애써야 한다. **종들**은 열심으로 부지런히 주인에게 복종하되, 보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충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듯 하라. 또 **주인들**은 종들에 대해서 까다롭고 고집을 피워, 공연히 엄격하거나 학대해서는 안된다. 도리어 그들을 형제로 인정하며, 자기도 주님 앞에서 그들과 같은 종임을 인정해서, 서로 사랑하며 인자하게 대우해야 한다.

(Tip: 여덟번째 계명은 문자 그대로 도둑질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이지만 더 나아가 이웃의 재산을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